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개발

기존과 다른 고체연료 사용

중국·이란 탄도탄 기술과 흡사

중거리 개발 상당한 기술력 입증

북한이 13일 새로운 전략 무기 체계인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 미사일 개발에 본격 착수한 이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핵 투발수단 확보에 초점을 두고 미사일 능력을 키워왔다.

북한은 1976년 이집트에서 스커드-B(사거리 300km) 미사일을 도입한 뒤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미사일 개발에 나서 1984년에는 스커드-B 모방형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 1986년에는 사거리 500km의 스커드-C 모방형을 시험발사한 뒤 1988년부터 이들 미사일을 작전 배치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는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실험 배치함과 더불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섰다.

1998년에는 북한의 첫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인 '대포동 1호'(사거리 2500km) 발사가 이뤄졌다. '대포동 1호'는 한미가 붙인 이름으로, 북한은 당시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은 2006년 사거리 67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를 시험 발사했으며, 2009년과 2012년(2회)에도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대포동 계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끝으로 2012년 12월 '은하 3호' 때는 3단 분리에 성공했다.

북한은 2012년 이후 사거리 9000km 이

북한 미사일 개발 주요 일지

- 1975년 중국서탄도미사일 DF-61 구입, 미사일 연구 시작
- 1976년 이집트에서 스커드-B 미사일 도입
- 1984년 스커드-B 모방형 개발, 시험발사 성공
- 1986년 스커드-C 모방형 시험발사
- 1988년 스커드-B와 C 모방형 직전배치 및 해외 판매
- 1993년 5월 '노동 1호' 발사
- 1998년 8월 '대포동 1호' 발사 실패
- 2006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발사 실패
- 2007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무수단 미사일' 실험배치
- 2009년 4월 ICBM '은하 2호' 발사 실패
- 2012년 4월 ICBM '은하 3호' 발사 실패
- 12월 ICBM '은하 3호' (사거리 1만여km 추정) 발사 성공
- 2016년 2월 7일 ICBM '광명성' (사거리 1만3천여km 추정) 발사 성공
-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 시험발사 일부 성공
- 2017년 2월 12일 북,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시험발사



북극성 2형 발사장면을 13일 보도한 북한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이상) 미사일을 2007년 실험 배치했지만, 지난해 시험발사에 연거푸 실패했다.

그러나 무수단 미사일을 토대로 지난해 SLBM '북극성' 시험발사에 일부 성공했고, 이 기술을 적용해 다시 실험 고체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런 경로를 통해 중국에는 고체 연료를 이용한 ICBM 개발에 나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준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시험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가 '구세대'에서 '신세대', 즉 현대화된 고체연료 사리드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체연진 미사일 개발과정에서)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거치지 않고 중거리로 바로 간 것은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됐다는 의미"라고도 말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북극성 2형' 개발 과정에서 이란 등으로 넘어간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습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만든 이란의 '세질' 탄도미사일과 북극성 2형이 흡사하다는 점에서다. /연합뉴스

"김정은이 발사 명령 하달"

북한, 발사 영상 4분 공개

북한 조선중앙TV가 13일 '새로운 전략 무기체계'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의 시험발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차량(TEL)이 움직이는 장면과 미사일이 궤공과 함께 창공으로 흰 기를 내뿜으면서 솟아오르는 장면 등 약 4분 13초 분량이다.

발사 준비가 끝나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윈손에는 종이컵, 오른손에는 담배를 든 채 '김시소'에 앉아있는 사진이 삽입됐다. 중앙TV 아나운서는 "(김정은이) 갑시소에 오르시어 지상대지상(지대지) 중거리 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 시험발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료해(이해)하시고 발사를 진행할 데 대해 명령을 하달하시었다"고 전했다. 중앙TV는 발사 순간을 근거리와 원거리 등 4가지 각도의 다른 버전으로 공개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99 탁발준의 황후 풍태후

풍태후(馮太后, 442-490)는 5호16국의 하나인 북연의 풍씨가문 출신이다. 북위 문성제 탁발준의 황후로 발탁되어 문성제 사후 헌문제를 폐위시키고 나 어린 탁발광을 효문제로 등극시키는 등 북위 조정을 좌지우지했다.

그녀는 북위 궁중의 후궁으로 들어가 태무제의 손자인 탁발준의 황후가 되어, 그녀의 부친 풍광은 진주 공주의 자사를 역임한 귀족으로 하북성 신도 출신이다. 어머니는 한사군의 하인 낙랑군 출신으로 교양이 매우 높은 여성이었다고 한다. 환관 종애가 태무제를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경호장군 유니가 하인과 모의해 종애를 주살하고 황손 탁발준을 옹립하니 문성제다. 문성제는 14년 재위하고 465년 26세로 죽었다. 선비족의 관습대로 사울만에 화장의식이 거행되었

시대 실시된 대표적 개혁조치 '균전제(均田制)'와 '삼장제(三長制)'다. 균전제는 호족의 토지 겸병을 억제하고 농민들에게 경작된 토지를 주어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균전이란 말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한인관료 이안세의 상소를 수용한 것이다. 15세 이상의 남녀에게 노전(露田), 마전(麻田) 등의 경작지와 택지를 지급하고 70세에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삼전(桑田)은 영입업으로 사유가 인정되었다.

삼장제는 호적을 분명히 하기 위한 반상화와 비슷한 조적이다. 5가(五家)는 1리(隣), 5리는 1리(里), 5리는 1당(黨)으로 하는 인보조직으로 인장, 리장, 당장은 임명하여 삼장으로 불렀다. 유민을 최소화 하고 균전제를 실효성 있게 시행하기 위한 제도개혁이었다. 삼장제를 건의한 이충은 "이제 부여에도 골고루 나가게 되고 조세도

용상 뒤 리더십으로 북위 부흥

는데 불길히 활할 타오르는 중 풍황후가 남편을 뒤따라려고 불길에 뛰어들었다. 남편이 일찍 죽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 울부짖음이 울었다.

남편이 일찍 죽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 울부짖음이 울었다. 남편이 일찍 죽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 울부짖음이 울었다. 남편이 일찍 죽자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 울부짖음이 울었다.

적게 바치게 되면 삼장제의 단맛을 알고 백성들이 다 호응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두 제도의 실시로 북위의 농업 생산이 늘어나고 민생이 빠르게 안정되어 호문제 연간의 선전이 실현될 수 있었다. 풍태후의 리더십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운 개혁으로 볼 수 있다. 호족들의 토지 겸병으로 수도 평성을 중심으로 많은 빈곤층이 생겨나고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다. 균전제와 삼장제는 자치능을 육성하고 농촌의 경제질서를 안정시켜 국가재정을 충실하고 북위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풍태후 지세 후한들어 최후의 국사 사건으로 위촉된 한인관료 서서히 부활했다. 균전제와 삼장제의 실시, 강력한 한화정책 실시 등이 가능케 된 것도 실무능력을 갖춘 한인관료들의 힘이 컸기 때문이다. 490년 풍태후가 죽고 강남은 유송에서 남제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북위의 문명화(文明化)가 풍태후 사후 진정에 나선 호문제의 치국이념이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수도의 남북 전도로 이어졌다. 풍태후 이래 국력이 충실해진 것이 낙양 천도를 촉진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풍태후의 섭정은 북위에 커다란 은혜를 베풀 셈이다.



화려한 물의 도시 '베니스 카니발' 이탈리아 '베니스 카니발'에서 뱃사공들이 12일(현지시간) 전통 의상을 입고 항해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가면 무도회,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연합뉴스

투자가치 좋습니다!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번지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모든 업종 개발 가능
 - 지분 / 분할 매매 가능
 - 평당 1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

나주, 전원주택단지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건너편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백운동 25분,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전원주택 허가 필
 - 전망최고 (나주호 들레길 공사중)
 - 매매 - 평당 80만원 (일시불 조정가)
 - 주인직매
- H.010-3605-5000

3년안에 대박 납니다!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532-32번지 외 6필지 (532-1,2,11,31,33,47번지)
 - 전남 노인요양원 바로 옆
 - 토지 6256평 / 건물 256평, 계획관리지역
 - 백운동 20분, 남평 10분, 강변도시에서 5분거리
 - 현재 양어장 운영중
 - 인근 전원주택 단지 평당 70만원씩 분양중
 - 매매 - 18억 7600만원 (평당 30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